

제54호

에이어리



치유정원 '십자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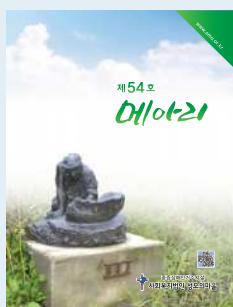
III



증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제54호
예아리

201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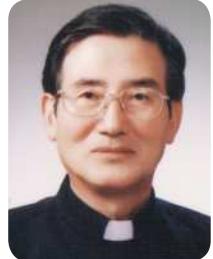
발행일 | 2015년 7월 10일
발행인 | 남금숙
편집인 | 편집위원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우320-932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
Tel.041)732-2085, 0889 Fax.733-0587

Contents

- 03 · **여는글**
성모의 마을 20주년 맞아 / 김영교 베드로신부
- 04 · **감사방**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 / 최명선 부모회장
- 05 · **사랑방**
꿈★은 이루어졌다 / 황선영
- 06 · **테마여행**
역시와 현재가 공존하는 'Cool' 한 테마여행 / 이예지
- 08 · **재활프로그램방**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자기유능감 증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 송찬희, 백선아, 홍성대
- 09 · **알림방**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행복을 팝니다' / 김한상
- 10 · **어울림**
추억하나 더하기 / 박미란
- 11 · **특수학급탐방**
특수학급의 특색 교육활동을 찾아서 / 진화희
- 12 · **프로그램방**
목욕탕 가는 날 / 이성수
- 13 · **봉사방**
감사한 마음을 담아 / 정태형
- 14 · **사진첩**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 15 · **봉사와 방문 감사합니다**
- 16 · **후원 및 봉사자 현황**
- 18 · **수입지출현황**
- 19 · **성모의기사수녀회**

여는글

성모의 마을 20주년을 맞아



김영교 베드로 신부

낯선 외국 수녀님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교구청을 찾아오고 땅을 찾아 중증 장애인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던 모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모의 마을’이 개원한 지 20주년이라니 참으로 시간이 빠름을 실감하게 된다.

감사미사를 봉헌하면서 되돌아보니,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 외에는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우선 20년 동안 이끌어주시고 섭리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처럼 큰 장애인 시설을 계획하고 이루어낸 ‘성모 기사 수녀회’의 술한 노고가 마음 속 깊숙히 다가온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마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85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귀한 복지사 선생님들과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우리 국가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지원과 도움 없이 우리가 하루 인들 제대로 버틸 수가 있겠는가!

또한, 알게 모르게 이곳을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은인들과 분주함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내어 찾아와 손수 봉사해주시는 수많은 봉사자분들이 있었기에 20년의 역사가 굳건하게 이어져왔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고마운 분들은 우리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모두를 한 식구들로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과 직원들, 특수반 교사님들이다. 이분들이야말로 85명의 장애가족과 함께 하는 삶의 동반자들이다. 이곳의 일이 다른 곳에 비해 훨씬 힘겹고 열악할 테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과 20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는 많은 분에게서 진한 인간애를 느낀다.

더불어 지난 달로 정년을 맞이하신 박규정 관리주임께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 얼마나 거칠고 고된 일을 묵묵히 찾아 훌륭히 이루어내셨는가 생각하면 안쓰럽기까지 하지만, 그보다는 이곳에서 정년을 맞는 그 자체로, 그분의 삶이 금자탑처럼 빛나 보인다.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하여 가장 늦게 퇴근하는 주방의 여사님들께 지극한 애정과 은혜로움을 느낀다. 85명의 식사를 하루 세끼 꼬박 챙겨야 하기에 그분들은 휴식도 휴가도 제대로 챙기기 힘들다. 85명의 식사 습관과 능력이 다 달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식을 정성스레 따로 준비하는 그 손길들을 바라보노라면 감사를 넘어 깊은 감동과 신비로움이 밀려온다.

헤아릴 수 없이 큰 관심과 사랑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평생 사랑의 빛쟁이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할 길이라곤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방법은 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장애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를 극복하며 기쁨과 행복을 삶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결코 외롭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충만한 삶에 초대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을 향한 모든 이들의 바람이며, 사랑이신 하느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20주년 감사글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



최명선 (부모회장)

찬미 예수님!

지금의 성모의마을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지난 20년 세월 효진이를 이곳 성모의마을에 입소시키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 부등켜 앓고 몸부림치면서 울었던 그날이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이 나네요.

20년이란 긴 세월을 지켜보면서 내 스스로가 성모의마을의 산증인, 우리 가족들의 대모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냈고, 지금은 가족들과 부모님들의 심부름꾼으로 부모회장이란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부모님 대신 성모의마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0여명의 가족과 수녀님들, 선생님들의 희생과 봉사 속에서 은총 · 축복 가득한 모습으로 개원하였고, 처음 몇 년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오네요.

자녀를 하느님 곁으로 떠나보내면서 통곡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네요.

오 신부님, 고 신부님, 수녀님, 많은 선생님들과도 정이 들만 하면 이별이 있더군요. 하지만 많은 이별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랑의 참 기쁨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밝은 모습과 환한 미소 속에 행복해 하면서 각자의 생활에 충실 하는 모습에 행복해합니다. 집보다는 성모의마을을 각자의 집같이 생각하고 휴가 오면 빨리 성모의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모습에 흐뭇해하고 만족해하면서 감사함을 다시 느껴봅니다.

그토록 공부하고 싶어 하던 우리 가족들에게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콜베하우스, 하늘 마음 매점, 카페, 치유공원 등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문을 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느님의 한 없는 사랑에 부모님들은 그저 감사 할 뿐입니다.

성모의마을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모든 후원자와 봉사자님!

이 모든 분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방

꿈★은...

이루어 졌다



황선영 (거주장애인)



나는 좋아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2002년 월드컵 때 사용했던 카드섹션『꿈★은 이루어진다』는 문구이다. 나에게도 30년간 간직해온 꿈이 하나있었다. 그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만나 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자 꿈 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너무나 꿈같은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 사람과 만나기전에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선영씨 혹시 그거 알아요?”그러자 나는 다시 반문을 했다. “뭐요?”라고, 그러자 선생님은 “몇 월 몇일 날 이택림씨가 대전에 온 대요. 사회자로요.”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기쁘고 이것이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아마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그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긋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지금도 떨린다.

사람이 날짜를 잡아놓으면 시간이 안 간다는 말이 있다.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막상 당해 보니 그 심정을 알 것 같았다. 왜 그렇게 31일이라는 날짜는 돌아오지 않는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날짜가 되어 충남대 정심화홀로 향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믿기지가 않아서 내 볼을 꼬집어보았다.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 줬기 때문이다.

한 시간여를 달려 정심화홀에 도착했다. 그러자 나는 또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아마 그때 내 옆에 누가 없었더라면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십 여분이 흐르자 내가 그렇게도 그립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무대로 걸어 나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원래 공연장에서는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갔어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누가 있든 없든 탄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역시 내가 생각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멋지고 핸섬 그 자체였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자리 잡았는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자씨 공연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미자씨가 노래를 스무 곡이 조금 넘게 부르는 동안 그 사람은 한 네 번 정도 나왔던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잊지 못 할 추억 이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았던 것은 이택림씨의 하모니카 연주가 내 귀에는 너무나 환상적이고 뭐라 표현 할 수 없이 좋았다. 그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찍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나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오월 이었다.

나의 30년만의 꿈을 이루게 해준 오작교 같은 사람들이다. 우선 일등공신인 정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특히 이 시간을 함께해 준 특수학급 진명옥선생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듈다. 그 밖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정말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테마여행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Cool’ 한 테마여행



이예지 (거주장애인)

두 세번 정도 갔던 테마여행이었지만, 이번 여행은 서울로 가게 돼 좀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첫 날은 봄비가 많이 왔다. 봄에 가는 여행이라서 좋은 날씨를 바랬지만,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가 우리를 명동으로 안내했다.

명동성당 근처에 차를 세우고 성당 내부에 들어가 보았다. 곁에서 보는 성당은 크고 멋있었다. 내부에 들어 가보니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졌고, 웅장한 분위기까지 느껴졌다. 그리고 양쪽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무언가 거룩한 느낌까지 들었다. 성당에서 조용히 미사를 드린 후 명동투어를 시작하기 위해 명동거리 쪽으로 내려갔다.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훨체어를 타고 우산까지 쓰고 가야했기에 이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점심을 먹으려 식당을 찾아다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가 보니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쌍둥이가 갈비탕 먹었던 식당이었다. 갈비탕이 양도 많고 맛있어서 배부르게 먹었다. 마치 쌍둥이들을 눈앞에서 본 것처럼 설레었다. 기분 좋게 나와 쇼핑도 했다.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서 다 사고 싶었지만, 꾹 참고 세별만 골라 나왔다.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경복궁으로 출발하였다.

경복궁에 도착한 후에 내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 턱도 많이 있었고, 길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어려웠다. 다음에 서울에 가게 된다면 내부에도 한 번 들





어가 보고 싶었다. 경복궁 입구 앞에 서있는 병사들을 구경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근무 교대를 하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것을 보고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갈 때 쯤 우리는 양평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유명한 식당에서 삼겹살 파티가 이어졌는데 장난기가 발동하여 인범쌤한테 청양고추와 구운 마늘을 넣어 쌈을 드렸고 그 쌈을 받아먹은 인범쌤은 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덕분에 다 같이 웃음꽃을 피웠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쉬다가 우리는 노래방에 내려가서 신나게 노래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인범쌤이랑 듀엣으로 세곡 쯤 불렀었는데, 인범쌤 노래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둘째날에는 아침을 먹고 ‘아침고요식물원’에 갔다. 식물원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있었다. 다양한 식물들도 있었고, 길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게다가 어제와는 다르게 날씨도 좋아서 선글拉斯를 쓰고 꽃향기에 취해 사진도 많이 찍어서 더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다. 중간에 카페가 있어 쉬면서 음료도 마시고 오는 길에 휴게소에 가서 다 같이 맛있는 점심도 먹고 간식도 사서 성모의 마을로 돌아왔다. 첫 날에 비가 와서 고생을 조금 했었지만, 다행히 오는 날은 날씨가 좋아 즐겁고 행복한 여행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여행을 다니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수도인 서울도 장애인이 다니기엔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다. 세계인이 모이는 곳이라 장애인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불편함은 1박2일동안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 테마 여행의 좋은 추억만 가슴에 남게 해 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재활프로그램방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자기유능감 증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압화공예 송찬희 강사님

성모의 마을 수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째... 처음 수업을 할 때는 어색함과 가족분들을 어찌 대해야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시작 했다. 핀셋을 집을 때 선생님들께 도와주지 말라고 하실 수 있다고 설명 드리고 수업을 시작할 때 조금 늦어도 서둘러도 천천히 하자며 서두르지 않았다. 시작한 수업이 6개월쯤 접어들었을 때 핀셋에 힘을 주고 작품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네요.' 라며 말씀해 주실 때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던 기억이 난다. 작년 압화 전시회에 성모의 마을 가족분들도 같이 전시회에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올해는 더 큰 작품 전시를 위해 욕심을 내고 작품을 하고 있다. 성모의 마을은 저에게 단순한 수업이 아닌 감사함을 알게 해준 곳이다. 앞으로도 더 멋진 작품으로 함께해요.

건강마사지 백선아 강사님

거주장애인은 근골육계 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긴장이 심합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건강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선아 강사님은 굳어진 몸을 풀어 줄 수 있는 테크닉 시연을 몸소 보이시고, 건강에 좋은 정보와 지식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어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요즘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이때에도 오셔서 "따뜻하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바이러스도 도망 간다"고 웃으시는 강사님의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오히려 본인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따뜻한 마음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음악활동 흥성대 강사님

그동안 성모의 마을과 같이 하면서 처음 생각나는 단어는 감사라는 말이다. 이전의 삶에서 내게 중요했던 것은 외형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고 싶다. 솔직히 나 외에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옷, 멋진 외모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고 슬픈 삶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성모의 마을에서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나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 같다. 영혼과 마음이 아름답다면 외적인 불편함은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불편하고 힘든 육체적인 상황에서도 즐거움과 웃음을 잊지 않는 영혼이 아름다운 우리 성모의 마을 가족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알림방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행복을 팝니다’



김한상 (거주장애인)



3월 초 성모의마을에 하늘마음 매점을 오픈하게 되었다.

우리가 매점을 운영하게된 목적은 이곳이 시내하고 떨어진 곳에 있어 가게가 멀어 간식을 먹으려고 해도 사먹을 수가 없었다.

매점을 운영한다면 첫째 이런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참여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 셋째는 매점을 통해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얻어 일상생활에 자립심을 키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뜻을 함께하는 7명의 지원자가 모여 추진하게 되었다.

초창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운영진들과의 마찰도 많았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 의견충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듈다.

막상 매점을 운영해보니 어려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 달이 지난 지금 매점이 점차 자리 잡아가면서 매출도 조금씩 오르고 서로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 가게 오픈하는 날은 웃음이 피어난다.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구입에 대해 운영진들과 회의도 하고, 가족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서 몰랐던 물건도 알게 되는 소소한 재미가 생겼다.

매점은 운영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조해주는 직원들이 있어 도움을 많이 받고 매점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어 한결 가까워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면도 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너무 매점에서 사먹는 게 많아 식사를 거르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매월 적지만 이익금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중 일부 수익금은 사회나눔실천을 위해 쓰고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늘마음 매점이 우리가족뿐만 아니라 외부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원장수녀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개방

추억하나 더하기



박미란 (거주장애인)

봉사자와 함께 맛있는 점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서 설렘과 기쁨으로 꿀베하우스를 방문하였다.

외출이 적었던 나에게 뜨거운 날씨가 걱정이 되었지만 봉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날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상을 한다.

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삼겹살을 굽는 봉사자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평상시에 먹기 힘든 음식을 야외에 나와서 먹는 맛이란 정말 최고였다.

삼겹살과 맥주한잔의 여유!!!

음~ 정말 최고였다.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물론 맥주로 인해서인지 아님 햇볕에 그을려서인지 한참 동안 얼굴이 벌개져서 당혹스럽긴 하였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에는 모자를 챙겨가야겠다....

봉사자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 같아 보기 좋다.

중도 장애인인 나는 논산여상을 다니던 중 연탄가스로 죽을 고비를 넘겨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나와 나이가 비슷한 논산지역 봉사자들과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다 그 시절 교내에서 정원을 거닐던 친구들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추억의 음악을 틀어 주어 따라 부르니 입가에 웃음이 번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내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생각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릴 찾아주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회가 되면 또 참석하고 싶다.



특수학급탐방



특수학급의 특색 교육활동을 찾아서~~~



진화희 (연산중학교 특수교사)

성모의 마을 특수학급은 대명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논산공업고등학교의 초·중·고등학교가 파견학급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학습적인 부분과 동작치료, 언어치료,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작치료, 언어치료, 생활체육 등의 특색 있는 교육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치료는 학생들의 오감을 활용하여 동작치료의 기법을 통해 개인의 신체, 정서, 인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돋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동작패턴을 통해서 특성에 맞는 동작치료 요법(앉기, 서기, 무릎서기 등)으로 틀어진 척추의 교정과 손발의 기능을 완화 시켜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치료는 조음 및 음운 발음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화, 목) 초·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주로 표현 할 수 있는 단어와 개념이 부족하여 일반아동들보다 말하는 문자의 길이가 짧고 단순하여 적절한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언어 발달 지체, 말더듬, 유창성 등 전반적인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각각의 언어 수준을 파악하여 발음 교정을 위한 교정을 위한 근육운동이나 사물이름대기, 육하원칙에 의한 문장 구성하기 등과 같은 재활과 언어 학습의 개념으로 언어치료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은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은 주로 개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스트레칭, 보치아 등과 같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이 학생들의 여가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특수학급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습관련 교육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기초학습능력의 신장 및 자주적인 생활태도를 향상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극복의지를 기르며,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방

목욕탕 가는 날



이성수 (거주장애인)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자들과 성모의마을 거주 장애인 나 외 몇 명과 목욕탕을 갔습니다.
가는 동안 내 나이 13살, 아버지와 두 형과 몇 년 동안 다니던 그 옛날 서울 한남동에 있었던 목욕탕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업고 두 형을 데리고 다니시던 아버지, 그렇게 다니시는 것이 좋으셨던지 아버지는 아버지와 우리삼형제를 합해서 4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목욕탕에 백발인 할머니께서 요금을 받고, 검정 고무줄이 달린 열쇠를 주었습니다.

재미난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군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나를 업고 따라오시다가 남자목욕탕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백발 할머니께서 “여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문 앞에서 어머니만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었습니다.

이번 목욕탕 가는 길은 나를 옛 추억에 잠기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몸은 가벼워서인지, 힘이 없어서인지 물에 들어가면 두 다리부터 둉둥 뜨더군요. 옛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몸을 꼭 붙잡고 물 안에 계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봉사자들께서 탕 안에 데려가서 잡아주고, 따뜻한 물도 부어주니까, 아픈 곳이 모두 사라졌어요.

나중엔 그 옛날 큰 형이 말한 대로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양팔로 탕 끝 쪽을 잡고 있었더니 중심이 좀 잡히더군요. 그 만큼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힘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깨끗이 씻고 나니 몸이 개운해져서 솜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목욕봉사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더 큰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두 배, 세 배... 불편하지 않게 해야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 봉사하러 오는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자들과 목욕탕 가는데 운전과 인솔을 맡은 서경준, 한종희 직원에게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목욕탕 봉사가 계속 발전하여 다른 거주 장애인들에게 좋은 기회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후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태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모의마을 봉사담당 정태형입니다.

문득 달력을 넘기다보니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6월입니다. 지금 중동호흡기 질환인 메르스여파로 모든 외부활동과 봉사활동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성모의마을 봉사자분들께서는 모두 평안하신지요? 무서운 메르스를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웃는 얼굴로 성모의마을에서 웹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모의마을이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을 지나오며 많은 봉사자분들과 후원자 분들께서 성모의마을 가족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을 어떤 일로 보답해드려야 할까?라는 마음만 앞서게 됩니다. 20여년간 가족 분들을 위해 이발봉사를 해주신 이발봉사팀, 여자가족들의 미용을 책임지고 있는 미용봉사팀, 가족들의 목욕을 도와주는 멋진 군인봉사팀 가족들의 학습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학습봉사팀, 그리고 외부프로그램과 소풍을 책임져 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삼성화재, 천안우체국 물류지원단팀, 가족들의 식사준비와 세탁물정리를 도와주시는 각 성당의 자매님들 그리고 주말저녁 가족들의 족욕과 식사보조를 도와주시는 각 성당의 형제님들, 그리고 시설의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정기봉사팀, 가족 분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성모농장의 농작물을 관리해주시는 궁동성당 영혼의등대팀, 주말에 시간을 내어 가족들을 위해 봉사를 와주시는 가족봉사단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봉사 해주시는 개인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봉사자 분들의 많은 노력과 사랑으로 성모의마을이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주년 기념미사시간에 신부님께서 몸이 불편한 가족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직원 분들과 봉사자분들을 위해 나는 어떻게 보답하여야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론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나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분들께 감사한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모의마을 가족 분들께서 지금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 분들과 봉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사랑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족들을 위해 항상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봉사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고마움을 기억하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모의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 01 시무식
- 02 봉사자 간담회
- 03 새신부님 미사
- 04 하늘매점 개업
- 05 거주장애인 자립지원
- 06 성모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 07 성모농장 감자파종
- 08 부활절
- 09 장애인의날 행사
- 10 취업구직설명회 및 성희롱예방교육
- 11 소방훈련
- 12 논산시장애인의날행사
- 13 성모의마을 20주년 기념미사
- 14 거주인 건강검진
- 15 성모의밤
- 16 거주장애인인권교육
- 17 박규정 주임 정년퇴임

봉사 와 방문 감사합니다

01



02



03



04



05



06



07



09



08



10



11



01 아이尼斯

02 (주)BEES

03 논산 예비군대대

04 만년동성당

05 배재대 실용음악과

06 논산시청소년수련관

07 상월부녀회

08 72항공정비대

09 토지공사

10 육군개혁단

11 대전우체국 시설관리 집중국

12 지원연대

13 민요가수 최장봉님

14 학습봉사

15 한국타이어

16 삼성화재

17 가수 인디언수니

18 연산중학교

19 해군정보화 기획실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은영, 구희정, 김민호, 김성태, 박지영, 박찬주, 배우재, 손동래, 손석재, 송영익, 승병희, 신순현, 연광 흘, 연사치과의원, 여제혁, 오화진, 윤여직, 이경화, 이소연, 이용구, 정면현, 조미숙, 조윤선, 허영익



후원금(2015년1월1일~2015년06월30일까지)

(주)대청공영,(주)아워홈,(주)진미식품,(주)한국드라이베아링,(주)휴베나,강대훈,강덕일,강명순,강복순,강신균,강애선,강영미,강영수,강인숙,강일권,강정미,강정숙,강차중,강창희,강호정,강희륜,고순덕,고순화,고영숙,고태성,고효진,곽동용,곽명자,곽성훈,곽전구,곽태희,구교상,구본관,구자희,구정자,권기문,권상로,권수연,권숙희,권순임,권연택,권재순,금강전기,길숙종,김경미,김경석,김경숙,김경임,김경진,김광한,김근태,김기,김기봉,김기철,김길순,김길자,김낙윤,김남순,김대열,김덕,김도희,김동일,김동현,김동화,김명숙,김명식,김명중,김미선,김미숙,김미애,김미영,김미현,김민관,김병민,김복수,김복순,김봉순,김봉진,김부덕,김상수,김상현,김석환,김선아,김선영,김선오,김선중,김성남,김성숙,김소영,김송우,김수복,김수자,김수현,김수희,김숙,김숙희,김순열,김순예,김순옥,김순자,김승우,김양숙,김양식,김양임,김연미,김영규,김영부,김영숙,김영심,김영옥,김영임,김영자,김영택,김영희,김옥기,김옥자,김용목,김용철,김용희,김윤미,김윤중,김윤하,김은경,김은미,김은숙,김은정,김은주,김은형,김의승,김이열,김익현,김인규,김인숙,김일우,김장수,김재순,김정달,김정란,김정순,김정옥,김정현,김정희,김종대,김종성,김종심,김종영,김종원,김종윤,김종임,김종학,김주영,김준,김준형,김준호,김지현,김진숙,김진수,김진식,김진아,김진영,김진자,김진팔,김진희,김창수,김창식,김창현,김철수,김춘달,김춘자,김태모,김태운,김택수,김한주,김한준,김현곤,김현수,김현숙,김현옥,김형근,김형식,김혜경,김희경,김희성,김희순,김희옥,나승준,나인준,나정은,나판균,남궁각,남봉우,남순애,노경옥,노덕영,노아네스,노애선,노영례,노영자,노은숙,노은주,노정애,노희숙,노산공고특수학급,대명초특수학급,대전교구,대전내동성당,도인록,류관숙,류동열,류재율,류홍,리주옥,모상선,목동군,문정숙,문창구,민경식,민병학,민선옥,박관철,박광천,박광필,박규진,박근수,박달영,박동근,박득수,박명안,박미나,박미희,박범진,박병삼,박병택,박복남,박상래,박상준,박선용,박선호,박성규,박성배,박성연,박승현,박순주,박승옥,박승현,박영,박윤자,박은숙,박은정,박응천,박인자,박재학,박점단,박정기,박정희,박종은,박종찬,박종희,박주완,박준성,박지연,박진옥,박진홍,박찬면,박찬배,박찬현,박찬희,박창규,박창기,박준지,박해운,박현미,박현숙,박현준,박혜경,박호준,박효식,박희호,방계순,방성식,방영자,배승호,배현경,배현미,백길중,백승준,백진기,백창진,변경봉,변두균,변혜숙,복진을,부모회,서경자,서광자,서교분,서교택,서금석,서기련,서나리,서단아,서명원,서성환,서일우,서장원,서정용,서정인,서지연,선우환호,선희순,설비선,성모의기사수녀회,성정모,성희창,소성섭,손경미,손선일,손세욱,손은숙,손현영,손형기,손형욱,송계준,송관욱,송기성,송명옥,송수일,송재훈,송정호,송진화,송철영,송춘실,송현숙,수상덕,신경식,신미숙,신미순,신상오,신숙희,신순자,신연학,신옥자,신정자,신진호,신항순,신형모,신호철,신헌신,심명옥,심복섭,심현관,심형석,아이러브피플,안남순,안동숙,안명순,안문숙,안미훈,안상길,안성호,안순례,안종희,안주영,양수천,양숙자,양옥석,양인일,여남선,어완,엄기성,엄춘실,여운석,연산중특수학급,염규홍,염윤자,염주란,오경순,오광순,오명선,오명화,오미화,오상근,오석현,오숙자,오연임,오용수,오일교,오점숙,오종오,오주영,오주은,오준식,오준이,오한나,오현경,오형근,오혜원,온유진,옹명임,우경임,우연옥,우인자,원용희,원재화,원종철,유경남,유경희,유명기,유명희,유미,유부림,유선희,유순전,유열호,유영구,유영민,유영철,유은두,유이선,유인운,유재현,유향옥,유혜영,육군계룡사후원회,육근홍,육현근,윤길중,윤문경,윤병렬,윤석권,윤수자,윤순자,윤언래,윤여철,윤영광,윤영성,윤영순,윤영휘,윤옥자,윤옥희,윤원규,윤은화,윤재명,윤정순,윤종대,윤진영,윤한섭,이경미,이경순,이경자,이광수,이광직,이규옥,이근표,이기남,이기상,이기석,이기학,이다리야,이덕례,이도영,이동근,이동호,이두화,이명수,이명자,이미란,이민옥,이민표,이병진,이복규,이상범,이상영,이상욱,이성은,이선난,이선량,이선미,이성민,이성순,이성하,이세혁,이소저,이수경,이수형,이숙희,이순례,이순조,이순호,이승남,이승미,이승욱,이연호,이연희,이영란,이영미,이영숙,이영옥,이영임,이영주,이영희,이용구,이용남,이용성,이우연,이우영,이웅호,이원길,이원웅,이월향,이유미,이윤복,이은선,이은수,이은진,이은칠,이장,이장현,이장흡,이장희,이재곤,이재룡,이재순,이재연,이전규,이정구,이정규,이정미,이정범,이정숙,이준오,이종규,이종규,이종숙,이종순,이종옥,이준복,이진경,이진숙,이진의,이진형,이창호,이충근,이치자,이택주,이평중,이한준,이해운,이향래,이현선,이현수,이현자,이현주,이현희,이혜숙,이혜영,이혜옥,이혜진,이홍근,이홍천,이화석,이화연,이홍재,이희경,익명,임경수,임대환,임문자,임미자,임민준,임민찬,임범택,임상수,임세영,임재신,임재현,임찬욱,임창래,임향빈,장경수,장금자,장기우,장남미,장동수,장명호,장선옥,장순자,장영희,장우상,장원제,장유정,장정숙,장진영,장진희,장한준,장한업,전경애,전광운,전선아,전연인,

전영희, 전용달, 전창선, 정경순, 정경애, 정계순, 정다운한의원, 정병호, 정보욱, 정상수, 정서윤, 정석환, 정선미, 정선수, 정선주, 정소영, 정연수, 정영진, 정욱진, 정원진, 정유진, 정은남, 정은석, 정은선, 정은옥, 정은주, 정재구, 정지풍, 정지현, 정창수, 정태빈, 정태성, 정태형, 정하양, 정현숙, 정혜숙, 정화숙, 정환림, 정희상, 조경숙, 조규정, 조기호, 조남욱, 조성대, 조숙자, 조숙희, 조승균, 조영감, 조영록, 조영홍, 조옥분, 조준영, 조진, 조한수, 조현, 조혜신, 주연탁, 지영옥, 지영철, 직원상조회, 진규호, 진용민, 진은영, 차미정, 차영철, 차옥남, 차은, 차인자, 채미자, 채병식, 최경묵, 최관진, 최금옥, 최난숙, 최덕화, 최명희, 최문자, 최백석, 최번순, 최병립, 최병호, 최상윤, 최선, 최선진, 최성근, 최순옥, 최영범, 최영은, 최영훈, 최우연, 최윤정, 최은자, 최인규, 최인영, 최재원, 최정길, 최주희, 최중진, 최춘정, 최동길, 최해경, 최혜수, 최혜연, 최효인, 최희례, 추순복, 추옥, 튼튼영어, 편재영, 하나병원, 유성근, 하만웅, 하무순, 하보숙, 하영호, 하옥경, 하지정, 하태천, 한강설, 한경희, 한국타이어, 한동림, 한상선, 한상조, 한선희, 한원규, 한치권, 함중현, 해피빈, 허신자, 허홍근, 현현섭, 호승환, 흥건표, 흥근선, 흥명숙, 흥성우, 흥순국, 흥승무, 흥영우, 흥용의, 흥윤정, 흥은실, 황귀득, 황규성, 황명구, 황선철, 황인옥, 황태성, 황현숙

물품후원

(주)미래생활, (주)쌍용C&B, (주)애경, (주)정식품, 72항정대, 강경늘봄젓갈, 국민건강관리공단, 궁골된장, 권영학가족, 기흥건축설계사무소, 김경식(미래에셋), 김명례가족, 김명환, 김미선, 김범호가족, 김아름, 김양숙, 김연수, 김영교신부님, 김효신가족, 김용남신부님, 김윤환, 김조경, 김원혁가족, 김찬희 가족, 노영섭, 논산푸드뱅크, 논산계룡축협(장군마트), 논산시보건소, 대명초등학교, 대전내동성당, 동방고등학교, 무상사, 문장환(YM건설), 박규정, 박명자, 박미나, 박서룡가족, 박종덕가족, 박종우신부님, 박성수가족, 박주원, 박준형, 박창순, 배재대학교, 백문녀, 법동성당, 부성정기, 부여성당, 삼성화재 RC나누미, 상월농협, 상월부녀회, 서울우유연무대리점, 서춘순, 서호준, 성낙순가족, 성동식품, 성모병원(재활의학과), 성요셉병원, 손은숙, 송진화, 시몬학사님, 신동안종합상사, 신순자, 신혜은(가톨리아), 씨튼영성의집, 아이니스, 양지상회, 오개수, 오상근(동명스틸), 윤광식가족, 윤옥자, 윤희열, 이도련 가족, 이동기가족, 이병석가족, 이수민가족, 이소영, 이수호가족, 이영숙, 이예지가족, 이원선가족, 유보상가족, 임군수가족, 임정수가족, 장재희가족, 장태산정육점, 전광선, 전혜선가족, 정규연가족, 조정연, 차옥남, 최영은, 최현주가족, 최영은, 충남도청, 하나은행, 하늘땅영농조합법인, 하유미씨가족, 한국야쿠르트, 한국토지공사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것이 필요합니다!!"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등

| 식 품 |

과일 및 간식류

| 그 외 |

청소기, 선풍기 등 생활가전제품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1월1일 ~ 2015.6월30일까지)

정기자원봉사팀

(주)BEEs, 72항공정비대대, 가양동성당, 갈마동성당, 건양대품앗이, 계룡대근무지원단(지원연대, 헌병대대), 계룡회, 공주신관동성당, 공주중동성당, 궁동성당, 김미경가족, 김대웅, 김선우가족, 김유원가족, 노은동성당, 대교동성당, 대전내동성당, 도룡동성당, 둔산동성당, 바다사랑봉사회, 박미경가족, 박봉석가족, 반석동성당, 법동성당, 삼성화재RC나누미, 삼위일체성당, 송인철외,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양원, 정안나가족, 정욱진가족, 탁구사랑, 한국타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단), 해군정보화기획실, 화마루공son

그 외 봉사해 주신 분들

건양대중등특수학과, 건양대학교의료IT공학과, 공주내동성당, 김찬희가족, 노성중21기동창회, 논산여고, 논산예비군대대, 대전여자고등학교, 대전우체국시설관리집중국, 만년동성당, 백승모가족, 아이니스, 연산중학교, 연세대기비탄, 아산시가족봉사단, 진명옥가족, 취암동주민센터, 한지명가족, 흥윤정가족

이 · 미용봉사

이발봉사(영성이용원, 신상이용원, 형제이용원), 미용봉사(한사랑라이온스), 오즈미용실

의료봉사

연산치과, 성모병원

꽃꽂이봉사

공주신관동성당 제대회

공연봉사

72항공정비대대, 논산청소년수련관, 배재대 실용음악과, 인디언수니, 최장봉

미싱봉사

이 정, 진영희, 김정순, 염병숙, 이기화

수입지출현황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후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후원계좌번호

법인후원계좌번호

- 농 협 461058-51-011210 (대표전화 : 1588-2100)
- 국민은행 457-25-0005-696 (대표전화 : 1588-9999)
- 하나은행 663-113251-00105 (대표전화 : 1588-1111)
- 신한은행 100-009-187570 (대표전화 : 1577-8000)

- 예금주 -
성모의마을

시설후원계좌번호

- 농 협 351-0663-5235-93 (대표전화 : 1577-2100)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06월 30까지)

(단위 : 천원)

| 수입내역 | | 지출내역 | |
|--------|---------|-----------|---------|
| 과목명 | 금 액 | 과목명 | 금 액 |
| 이월금 | 158,999 | 급 여 | 29,052 |
| 지정후원금 | 65,710 | 제 수 당 | 5,831 |
| 비지정후원금 | 79,636 | 퇴직금및퇴직적립금 | 813 |
| | | 사회보험부담비 | 1,353 |
| | | 기타후생경비 | 4,430 |
| | | 기관운영비 | 100 |
| | | 회 의 비 | 1,156 |
| | | 여 비 | 110 |
| | | 수용비및수수료 | 7,239 |
| | | 공공요금 | 46,859 |
| | | 제세공과금 | 2,150 |
| | | 시 설 비 | 39,445 |
| | | 자산취득비 | 10,410 |
| | | 시설장비유지비 | 1,666 |
| | | 연 료 비 | 4,869 |
| | |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1,150 |
| 합 계 | 304,345 | 합 계 | 156,633 |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 기사 수녀회에 초대합니다.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 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대촌리 122-1) 우)320-932

※ 성소상담 수시 가능

홈페이지 _ www.fsomik.co.kr

성모의 마을 찾아 오시는 길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약40분 소요 → 공주 · 논산방향(국도23번)
→ 유흥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
(1.5Km) → 성모의마을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
(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
의마을

이제 삶을 놓지 않고 있는 그대는 사랑입니다.

아침고요
원예수목원

The Garden of Morning Calm

www.mgco.kr

농수정원
Dinner The Garden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국내 최고의 정원